



20개국 420여 업체 신기술 축제 연다

상하이 인쇄박람회

지난 5월13일 상하이(上海) 푸둥 전시장에서 개막 예정이었던 All in Print China(국제 인쇄기술 및 장비 박람회)가 급성호흡기증후군(SARS)으로 연기되었다가 오는 10월29일 더 커진 규모로 개막한다.

상하이의 푸둥에 자리잡은 국제전시센터(SNIEC)에서 2003년 10월29일부터 11월1일까지 개최되는 All in Print China는 미국, 영국, 덴마크, 스위스, 벨기에, 캐나다, 이스라엘, 핀란드, 네덜란드, 남아프리카, 싱가포르, 스페인,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등 20여 개국에서 420여 업체들이 전시 면적 40,000m²의 전시장에서 경연을 펼치게 된다.

하이텔베르그, 만로랜드, KBA, 고모리, 미쓰비시, 아키야

마 등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는 오프셋 인쇄기계 업체들도 이번 박람회에 참가, 중국 인쇄기계 업계에 새 지평을 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지제록스, 애플컴퓨터, HP, 캐논, 엡손, 아그파, 크레오, 다이니폰스크린, 사이텍스, Yin King Hong, 에스코그래픽스, UPM-키메네 페이퍼, 밥스터 그룹 등 세계적으로 저명한 업체들도 대형 부스를 예약,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국 국내 인쇄기계 제조업체인 베이렌 그룹과 상하이 일렉트릭 그룹도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당초 예정일인 5월13일보다 개막이 많이 연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내외의 많은 전시 업체들이 참여에 여전히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일부 업

<주요 세미나>

주 관 업 체	내 용
고모리(일본)	국제적 인쇄물과 부가가치 인쇄물의 개발 동향
후지필름스타라이트	최신 CTP 솔루션 시스템
후지제록스(중국)	프로덕션 워크플로우 향상 위한 크레오의 네트워크 그래픽 프로덕션 프로그램 참가 신규 교정 솔루션 제조사들을 위한 주문형 도큐먼트 솔루션 공급 방법 도큐먼트 관리 소프트웨어는 인쇄산업의 사업성 향상을 위해 어떻게 도울 수 있나
엘렉스-엘렉트로스테틱-GmbH	전통적 인쇄방식에서 디지털 인쇄방식으로의 변천-그라비아와 엘렉트로스테틱을 위한 엘렉트로스테틱어시스트 타입GNH61
럭키 그룹 제2필름 공장	히셋 운전기 WM70, 전통적 인쇄에서 디지털로
다이니폰스크린(중국)	워크플로우 프로세스와 스크린 테크놀로지
사이텍스디지털프린팅(아시아퍼시픽)	디지털 원-투-원 세미나
마케팅매뉴팩처링&테크놀로지	담배종이 인쇄의 신경향으로서의 E-빔, 환경보호 문제에 따른 레이저 파라 프린팅 및 요구사항 고품질 사업과 포장인쇄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는 UV 및 광택 인쇄

체는 예약된 부스 규모를 늘이기도 했다. 코닥폴리크롬, 후지 필름 스타라이트 등의 브랜드 이름으로 대표되는 10여개의 유명한 PS 플레이트 업체들과 30여개 국내외 잉크 제조 업체들도 박람회의 규모 확장에 기여했다.

급성호흡기증후군이 물러간 후 참가업체가 360여 업체에서 420여 업체로 증가함에 따라 전시 면적 수요를 소화하기 위해 당초 35,000㎡에서 2번 전시관에 5,000㎡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체 전시 면적을 40,000㎡로 확장했다.

이 박람회의 주관은 중국인쇄기술협회(PTAC), 중국인쇄기술학회(CAPT), 메세 뒤셀도르프차이나 등이 공동 주관하며, 중국 인쇄 및 출판 관리청, 상무부 및 상하이 지방정부 대표 등이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는 추산 결과에 따르면 각국 인쇄기계협회와 기타 조직에서 모집한 방문객 수는 5만명 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례 중국인쇄업체회의, 중국인쇄기술협회장 및 사무총장단 회의, 플렉소 인쇄 및 그라비아 인쇄 기술회의, 포장 및 인쇄 신기술회의 등 국제회의들이 박람회와 병행하여 개최된다. 그리고 중국 각 성의 인쇄기술협회도 방문단을 모집하여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최측에서는 방문객을 돕기 위해 '드루파'를 본뜬 자료 배포 센터를 2번 전시관에 마련, 박람회장을 떠나기 전에 방문객들은 이 곳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또 보도진을 위해서는 2번 전시관에 프레스 센터를 마련하여 기자들이 언제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시관 안에는 정보 센터가 마련되고 식수가 무료로 제공되며

박람회 기간 중에는 국제전시센터와 지하철 역 사이에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2003년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지 2년째 되는 해이며 10차 5개년 계획의 세 번째 해이다. 중국의 기업들은 국내외에서의 도전에 맞서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신기술 도입, 장비 개선, 투자 계획 등의 전략을 세워 두었다. 중국 사회 각 부문에서 수준이 계속 향상됨에 따라 프레스 인쇄, 포장인쇄 등이 새로운 발전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잠재력이 큰 인쇄시장이 중국에서 형성되기 시작해 세계 인쇄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급성호흡기증후군이 물러간 이후 중국 경제는 각 분야에서 새로운 추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인쇄산업에서도 사업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All in Print China'는 각 협회, 국제적인 전문 박람회 주관사 및 언론과 긴밀히 협력하여 박람회를 대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의 핵심 주관사인 메세 뒤셀도르프차이나는 독일 뒤셀도르프 박람회사의 자회사다. 뒤셀도르프 박람회사는 세계 굴지의 박람회 주관사로 전 세계 62개 대표 사무소에서 95개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뒤셀도르프는 독일 밖의 다른 지역이든 뒤셀도르프 박람회사는 통합된 서비스와 맞춤 솔루션을 전시회사와 방문객 모두에게 제공한다. 뒤셀도르프 박람회사가 주최하는 드루파는 인쇄, 출판, 포장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박람회이며 160,000㎡의 전시 면적을 자랑하며, 인쇄업계의 올림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문재호 부장>

홈페이지 : www.newskp.co.kr

부가가치 창출! '투자비 절감' 이 관건입니다



고가의 장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고기기로도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인쇄기기 및 프리프레스 장비 전문공급 업체인 뉴에스케이 이피와 상의 하시면 그 길이 보십니다."

(주)뉴에스케이피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6-24 남지빌딩 401
전화 : 2279-0919 팩스 : 2271-1221
홈페이지 : www.newskp.co.kr

취급
품목

각종 인쇄기 · 컴퓨터기기 일체
프리프레스장비